



“세출구조조정 없이 재정안정화기금 탈탈”

제주도의회 행자위, 코로나19 추경심사서 지적
남은 기금 딱 300억… “위기상황 또 벌어지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 충당하면서 제주도의회로부터 ‘안일한 행정’이라는 못매를 맞았다. 1원의 세출구조조정 노력 없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돼 있는 기금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의 도비 매칭비인 266억원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 등 73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남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본예산에 조성된 300억원이 전부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유동성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100% 다 털탈 터는 게 맞느냐. 2~3

년 후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자고 한 건데 정말 다른데서는 세출구조조정할 금액이 전혀 없어서 미리 당겨온거냐”면서 “이번에 구조조정한 게 뭐가 있냐. 단 1원이라도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2차 추경을 위해 현재 세출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을 단 1원의 절감 노력 없이 사용했음을 지적하면서 “너무 쉽게 일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위기상황에 쓰라고 한 기금인데, 당장 급하다고 다 써버리면 앞으로 도래하는 상황은 뭘로 대비할 것인가. 결국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도정의 세출조정 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특히 현 의원은 제주도가 조문 정비를 하겠다고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을 운용할 여지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통해 제도개선이 될 경우 이 기금이 목적외에 일반예산에 투입돼 쓰여질 수 있는 여지에 우려를 표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도 도의 예산운용 실패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매꾸기 위한 책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가결했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사실상 부결)로 했다. 오은지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결국 폐기 수준

20대 국회, 오는 20일 마무리
21대 국회서 절차 또 밟아야

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제주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법 개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법,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피해자 배상 방안 내용을 담은 36조를 제외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통과돼 기본법으로 자리 잡으면 향후 4조7000억여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배·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전에 포함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기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의료원장 공개모집 도, 1·2차 심사거쳐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료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의료원장 공개 모집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오는 25일부터 29까지 5일간 응모 원서를 접수한다.

응모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 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의료분야 4급이상 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인 사람,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2차 면접심사를 치르게 된다.

임용 절차는 제주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서를 접수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명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원회용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제주의료원장은 제주의료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6월 21일부터 2023년 6월 20일로 3년간이다.

이태윤기자



5월 취나물밭 풍경 17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취나물 밭에서 농민들이 김매기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Hits 등 대상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귀포시, 5~6월 두달간 진행
식품 취급 점검해 행정처분도

Hits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날들이 많아지는 5~6월 두 달 동안 Hits 등 지역 내 비가열 음식을 취급하는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으로 컨설팅반을 구성, Hits 등을 찾아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반은 이 기간 ▷무표시 제품 판매·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음식물 포장 판매가 늘면서 식품오염 위험도 또한 동반 증가함에

따라 포장·배달 시 식품 취급에 주의토록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방침이지만 중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나들이철 햇볕이 뜨거운 환경에서는 음식물 관리를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종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본격화

제주시 올해 실시설계… 2023년까지 200억 투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제주시 종달지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200억원(국비·도비 각 100억원)을 투입해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종달리는 주변지역보다 낮은 해안가 저지대 지형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때 배수 관거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월류에 시가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모에 응모해 지난해 9월 선정된 이번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1개소, 우·오수관로 3.5km, 방조제를 정비하게 된다.

이 사업은 부처별로 기존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던 공사에서 사업별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바뀌 중복사업

을 최소화하고 일괄공사를 통한 집중투자 방식으로 재해예방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기존 재해예방사업은 행정안전부, 하천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배수로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왔다.

종달지구는 제주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3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이달 중 9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1년 5월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완공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페렴구균 예방접종하세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17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폐렴구균은 세균성 폐렴, 수막염,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잠복기가 1~3일로 짧고,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기침, 흉통,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다. 1회 예방접종만으로도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50~80% 예방할 수 있다. 김도영기자

북촌초등학교 총동문회 2020년도 정기총회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소식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소 큰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북촌초등학교 총동문회 2020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만남의 기쁨을 갖고 모교 발전에 하나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 일 시 :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1시
- 장 소 : 북촌리사무소
- 안 건 :
 -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회칙 개정
 - 임원선출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연락처 : 회장 이정국 010-3696-0989
사무국장 김미형 010-6623-0504

북촌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정국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시·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 상 — 모집 초기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려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1 원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